

PSG, 선수들 실착 한글 유니폼 경매 ... 이강인, 음바페와 공동 1위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PSG)의 인기가 팀 내 최고 수준임이 증명됐다.

PSG는 트아브르와 리그1 14라운드 경기에서 선수들이 입었던 한글 유니폼 경매를 시작했다.

5일 경매 사이트 라이브옥션에 따르면 이강인과 음바페의 유니폼은 5천유로(약 5,400달러)로 가장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준우승 멤버이자 현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인 망달 콜로 무아니의 유니폼으로 가격은 650유로였다. 이강인의 유니폼 가격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차이가 많이 난다.



▲ 한글 이름 유니폼을 입은 이강인이 감독의 지시를 듣고 있다. 사진=psg.fr

음바페는 프랑스 내에서는 '축구의 신'에 비견된다. 인기로는 이미 지네딘 지단과 티에리 앙리의 선수 시절 인기를 넘어섰다. 이강인은 그런 선수와 유니폼 가격이 비슷한 것이다. 놀라운 점은 이강인의 유니폼을 5천유로에 입찰한 이는 한국 팬이 아니라는 점이다. 라이브옥션에 따르면 입찰자는 프랑스 팬이다.

한편 지난 3일 PSG는 트아브르와 리그1 원정 경기에 한글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치렀다. 이강인의 합류로 한국 팬이 급격히 늘자 보

답하기 위한 팬서비스로 해석된다. PSG의 인기는 이강인의 합류 이후 더 좋아졌다. 한국은 물론 아시아권에서의 인기가 상승 중이다. 팬 유입이 늘어났고, 구단 SNS의 구독자도 크게 늘었다.

찰칵! 손흥민 세리머니 집중 조명



▲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는 손흥민. 사진=AP뉴시스

손흥민이 골을 넣고 취하는 찰칵 세리머니가 조명을 받았다.

6일 '스포탈코리아'에 따르면 영국 매체 '더선'은 전날 "많은 선수들은 득점 후 특유의 세리머니를 선보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토트넘 홋스퍼의 스타 손흥민도 마찬가지다"고 언급했다.

이어 "손흥민은 득점 후 카메라 세리머니를 선보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세리머니는 손흥민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고 그를 상징하는 제스처로 자리 잡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골을 넣는 건 좋은 추억이다. 사진을 찍어 좋은 추억이 마음속에 남긴다는 의미다"라고 손흥민이 찰칵 세리머니의 의미에 대해 말한 내용을 전했다.

손흥민은 득점할 때면 손가락으로 카메라를 표현하는 세리머니를 선보인다. 이전 동료들도 모두 따라하면서 토트넘의 상징이 됐다. 더 나아가 유명 축구 게임에도 손흥민의 세리머니가 등장할 정도로 어느덧 세계가 인정하는 시그니처가 됐다.

손흥민은 찰칵 세리머니에 대해 "인지도가 생겼지만, 바꿀 생각은 없다. 항상 마지막 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 어려운 리그에서 골을 넣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순간을 캡처하고 저장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했다"고 이 세리머니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김하성 "MLB 생존비결은 한국인의 근성"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활약하는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생존 비법에 대해 밝혔다.

4일 '이투데이'에 따르면 김하성과 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엘리어나 호텔에서 열린 2023 조아제약 프로야구대상 시상식에서 배지환(피츠버그 파이리츠)과 함께 특별상을 공동 수상했다.



▲ 김하성이 수상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스1

KBO리그를 거쳐 2021년 메이저리그 진출에 성공한 김하성은 올해 152경기를 뛰며 타율 0.260, 17홈런 60타점 38도루를 기록했다. 아시아 내야수 최초로 MLB 골드글러브를 수상하는 역사도 썼다.

이날 김하성과 나란히 선 배지환은 김하성에게 "메이저리그에서의 생존 비법이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

다. 그러자 김하성은 "한국인의 근성으로 악착같이 달라붙었다"고 말했다.

배지환은 야탑고를 졸업하고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가 마이너리그를 거쳐 지난 시즌 중 MLB에 입성했다. 올해 빅리그 111경기에서 타율 0.231, 2홈런 32타점 24도루를 기록했다.

김하성은 내년 3월 고척돔에서 최초로 열리는 샌디에이고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MLB 개막전을 맞

은 후배들이 관전하고 동기부여를 얻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했다. 김하성은 "어린 선수들이 많이 와서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경기하는 걸 보면서 큰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 올해 노시환, 김혜성, 이정후 등 어린 선수들이 너무 잘해줬다. 이 선수들이 하루 빨리 메이저리그에 도전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한다"고 밝혔다.

타운뉴스 업소록

"리스팅 신청하세요!"

타운뉴스 업소록 신청서

Phone: _____

업소명(한글): _____ 주소: _____

영판: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업종: _____

- 영문은 대문자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또는 변경 사항이 있는 업소에서는 내년도 개정판을 위해
 지금 곧 수록 신청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광고 게재에 대한 상담을 환영합니다.



Tel 562.404.0027 Fax 562.404.0039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

info@townnewsusa.com